

17/04/30(주) 주일예배 / 제목 :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창2:16~17) p.3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사람의 불완전함과 연약함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낙원동산에 두어 살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어 그 좋은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므로 에덴동산에서는 없었던 고통과 번뇌, 괴로움, 걱정, 근심, 다툼, 시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의 기쁨을 빼앗긴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람도 잘못하였지만,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었을까? 안 심었다면 따 먹을 일도 없었을텐데 말이야!” 라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동기유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안 심어도 될 것을 심었을까요?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 속에 담긴 복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론 /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선악과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창 2:17), 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창 3:3) 라는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나무의 실과를 간단히 줄여서 흔히 ‘선악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선악과’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먼저 우리는 ‘알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알게’ 라는 말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재능’까지도 함축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란 표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을 포함

하여 선과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 왜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필요해서인가요? 만약에 필요한 것이라면 먹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물론이고 선과 악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비스러운 나무를 에덴동산에 두었을까요? 그것도 외곽지역이 아닌 중앙에 두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말씀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하시며, 셋째 날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새 종류)와 어류(물고기 종류)를 창조하시며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큼은 다른 동물과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시 8편; 겔28:12).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 받았기에 그 목적에 맞게 살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6~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에덴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에 아담에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만큼 선악과 언약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비로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지상명령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 아담이 홀로 창조 되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뱀이 사람을 타락하게 유혹할 때에도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채소와 모든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은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드실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옳지. 저 나무 보이지?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니가 저 열매를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니가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잘 보이는데 있는 나무보고 날 기억하렴..."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너는 내가 만들었어. 살면서 날 잊지 마."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내가 널 만들었어."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이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서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도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죄를 짓게 만든다, 아니다'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의의'를 규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줄 때 우리는 차용증서를 만듭니다. 그 돈은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쓰기에는 남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내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차용증서와 같은 증거물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오히려 그걸 볼 때마다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름도 지어주면 '어? 내가 여기서 왕인가? 통치자인가?'라는 교만의 착각 속에 있게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너 위에 내가 있다." 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산에 사신다면 매일 눈을 뜨고 동산중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는 것을 보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동산중앙을 쳐다보면 생명나무보다, 선악과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볼 때마다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으신 목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율적인 결정을 무한대로 존중하시는 분임을 보여 주는 귀한 징표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 43:7) “...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 60:21) “...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우월한 위치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순종으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보상으로 영생도 상급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먹지 않으면 살리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언약이 주어지던 당시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지 육체적 생명으로만 사는 것은 언약에 대한 상급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케 하려고 만든 부당한 도구이었거나, 사람의 실수를 예상치 못하고 만든 실패작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창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위한 선한 도구로 만드신 실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두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복까지 주실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되었다면 지금의 죽음은 오지 않았고 이 지구상이 곧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실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문제는 선을 위한 도구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동일한 하나의 십자가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편에서 선악과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선악과는 단지 거추장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방해물에 불과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흑자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선악과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고 사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람

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필요도 없고,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토록 에덴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는 비록 범죄의 가능성은 없겠지만 불완전한 창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일종의 인격이 없는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일체 거절이나 불평이 없는 로봇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조건 순종하며 죄를 짓는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완전한 인격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완전한 창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인격을 지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없다고 한다면 비록 인간이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법, 사람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는 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당연한 것을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헛된 것으로 인하여 법을 어겼고, 그 결과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모든 창조목적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인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1.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
2.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3.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